

7/28/19

설교 제목: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 복음 9 장 14-29 절

- (막 9:14) ㅇ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절관주** 마 17:14, 눅 9:37
- (막 9:15)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 (막 9:16)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 (막 9:17)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 (막 9:18)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절관주** 마 17:19, 눅 9:40
- (막 9:19)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 (막 9:20)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 (막 9:21)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 (막 9:22)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 (막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 (막 9: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절관주** 엠 2:8
- (막 9:25)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 (막 9:26)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절관주** 막 9:20
- (막 9:27)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 (막 9: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절관주** 마 17:19
- (막 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절관주** 사 40:31, 행 1:8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홉 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말 못하게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쫓아내어 말 못하게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심으로 당신이 고난 받고 죽은 후 삼일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지 결코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오는 동안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 남아 있던 아홉 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무엇인가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 (막 9:14)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무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합니다.

- (막 9:15)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서기관들과 무엇을 변론하고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 (막 9:16)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 (막 9:17)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막 9:18)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느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라도 무리 중 한 사람이 말한 내용으로 보아 변론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황이 이렇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들린 아이를 둔 한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서기관들은 귀신들린 아이 하나 못 고치는 제자들을 조롱하며 이때다 싶어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까지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로 인해 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예수님께서서는 아홉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막 9:19)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제자들만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세대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 세대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을 세대의 문제라고까지 확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모여있던 모두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복음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무리들은 기적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음으로써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함으로써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 일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세대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믿음 없는 세대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막 9:20)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막 9:21)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막 9:22)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라고 대답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이 아버지의 대답 속에서 당사자인 아이 뿐만 아니라 아이 아버지의 고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그런 모습을 오랜 세월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고통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심으로써 귀신들린 아이로 인해 아버지의 가슴에 쌓여 맺힌 아픔과 상처까지 치유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부탁드립니다.

아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기에 예수님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막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며 아이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전능자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드디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자신의 믿음 없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막 9: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없음을 도와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순된 말 속에 아버지의 다급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지적으로 자신이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진심으로 믿음 주실 것을 구하는 아이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께서서는 아이에게 들린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어 주십니다.

(막 9:25)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막 9:26)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막 9:27)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쫓으신 후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이 아버지의 불안을 없애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동안 발작을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당장은 멀쩡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발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아이 아버지는 이것이 완전한 치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 아버지에게 치유의 확신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시자 귀신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는 떠나갔습니다. 아이는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고 이 광경을 지켜 본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홉 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낼려고 애썼어도 쫓아내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해 내신 것입니다.

누가 복음은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라며 기이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눅 9:4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눅 9:42)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눅 9:43)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를 묻습니다.

(막 9: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막 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막 6:7)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막 6:8)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막 6:9)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막 6:10)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막 6:11)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막 6: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막 6: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서는 “기도(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답하십니다.

아니 앞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꾸짖으시더니 이번에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전에 귀신을 쫓아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입니다.

지난 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냈던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결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시여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 천년 전의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 구원에 이르도록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